

BIXPO

전력에너지 신기술 광주 총집결...미래 산업 한눈에

한전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엑스포 3일까지 DJ센터
40개국 3000여명 참가...668개 부스·38개 컨퍼런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글로벌 종합에너지박람회 2017년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엑스포(Bitgaram International Exposition of Electric Power Technology, 이하 빅스포·BIXPO)가 1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빅스포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한 후 광주전남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 밸리 허브를 널리 알리고 미래 전력기술의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전력에너지 분야 글로벌 종합에너지박람회다.

개막식에는 전세계 40여 개국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력분야 전문가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3일까지 사흘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인호텔에서 'Connect Ideas, Meet the 4th Revolution'을 주제로 미국전력연구원(EPR), 지멘스(SIEMENS), 제너럴 일렉트릭(GE), 노키아(NOKIA) 등 268개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68개 전시부스와 38개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6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전력분야 4차산업의 최신 신기술을 선보이는 '신기술 전시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합을 벌이는 '국제발명특허대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기술전시회에서는 AI, 빅 데이터, 로봇, 드론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이 전시된다. 지난해 열렸던 '에너지신사업관' 등 4개의 테마와 '에너지 4.0관', '발전신기술관', 'Smart City&Start Up관' 등 3개의 테마를 추가, 7개 테마에 총 473개 부스가 전시된다. 미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전력산업 물입형 체험투어, 송전철탑 승탑

체험, 동계올림픽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한전 비서 로봇 체험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참가 자격과 분야를 확대한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총 152개의 국내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제컨퍼런스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과 정책을 논의한다. CTO포럼, 신기술 컨퍼런스, 스페셜 세션 등 총 5개 분야 38개가 진행된다.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 톰 탱스콧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과 에너지산업의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된다.

한전은 빅스포 기간 동안 40여개의 에너지 신산업 우수 중소기업 및 외국기업과 함께 에너지밸리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질 예정으로 2일에는 한전 등 전력분야 공공기업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국내외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도 마련됐다. 개막 첫날 열리는 뉴서울필하모닉의 오페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 기간 내내 BIXPO 버스킹대회, 비보잉, 재즈 공연 등이 야외공

연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프랑스, 독일, 잠비아 등의 국가와 13건의 MOU를 체결하며 비즈니스 장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열린 빅스포(BIXPO) 2017 개막식에서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과 김황식 에너지밸리 위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에너지불을 활용한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빅스포가 전력산업계의 발전을 다함께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전

력분야 세계 최대의 에너지 국제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경제불확실성 최고 애로”

한은, 광주·전남 기업 설문

광주·전남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들었다. 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비제조업은 내수부진을 꼽았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사업체 55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기업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19.9%)을 꼽았다.

이어 경쟁 심화(9.1%), 원자재 가격 상승(9.1%), 수출부진(8.3%),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5.9%) 순으로 답했다.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8.7%)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이어 경쟁 심화(17.8%),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2%), 불확실한 경제 상황(8.0%), 자금부족(7.1%) 순으로 답했다. 또한 광주·전남 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여전히 어렵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심사지수)는 91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6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물가 상승 진정세...광주·전남 소폭 하락

신선식품 각각 7.8%·6.5% ↓...오락·문화·음식은 상승

10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는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50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 1.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대비 섬유유연제(25.7%), 당근(20.

4%), 버섯(8.7%), 휘발유(2.6%) 등이 상승했다. 호박(-49.1%), 상추(-41.1%), 배추(-35.9%), 무(-27.9%), 돼지고기(-7.3%) 등은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8%, 전년 동월대비는 0.2% 각각 하락했다.

전월대비 지출목적으로 교통, 오락·문화, 주택·전기·연료, 음식·숙박은 상승했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부문은 하락했다.

10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54로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는 1.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대비 2.1% 올랐다.

전월대비 당근(23.2%), LPG(3.4%), 양파(5.1%), 고등어(3.1%) 등이 상승했고, 시금치(-42.9%), 배추(-29.9%), 풋고추(-21.0%) 등은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5%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전월대비 지출 목적으로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이 상승했고,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부문은 하락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도시가스 요금 이달부터 8.9% 인하

年 3만6367원 요금 감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은규)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8.9%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2017년 10월 까지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60.21원/㎡) 해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5000억원 누적됐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다. 2015년 5월 이후 ㎡당 88원이었던 정산단

가는 올해 1월부터는 ㎡당 60.21원으로 낮아졌다.

20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3만6367원의 도시가스 요금감소(광주시 공동주택 평균 주택난방 사용량 604㎡/년 기준)가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56.47 (+33.04)
- ↓ 금리 (국고채 3년) 2.14% (-0.02)
- ↑ 코스닥 695.77 (+1.57)
- ↓ 환율 (USD) 1114.50원 (-5.90)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영암서 최종전

5일 ‘엑스타 슈퍼챌린지’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 ‘2017 엑스타 슈퍼챌린지’ 최종라운드가 오는 5일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슈퍼레이스가 주관하는 엑스타 슈퍼챌린지는 자가차량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공인 대회로서 국내 대표 아마추어 대회이다. 금호타이어는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이 대회에 후원을 해오고 있다.

엑스타 슈퍼챌린지는 2016년부터 클래스 매니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서킷을 처음 찾은 초보 레이서들도 쉽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16년 누적 참가자수가 350여명을 기록했고, 2회 이상 재참가율은 약 60%에 이르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017 엑스타 슈퍼챌린지는 본인의 기록으로만 순위를 정하는 타임 트라이얼 및 타겟 트라이얼과 참가자들과 경쟁 다툼을 하는 스프린트 3개 부문의 총 11개 클래스로 구성된다. 약 140대의 참가 차량은 모두 금호타이어를 장착한다.

주경태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국내 대표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인 엑스타 슈퍼챌린지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대표전화 1588-2219

KCPBA 2016

2011

2011

2011

2011

2011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